

르포 // 광주·전남 마스크 납품 농협 광주물류센터 가보니...

# 시도민 5만명이 쓸 마스크 분류... 5천평 물류센터 새벽까지 분주



밤 10시 마스크 도착



본격 상하차



소분류 작업



새벽 4시 배송 준비 완료

광주 26곳·전남 308곳 510개 하나로마트에 납품 안전·위생관리 최우선...60여명 직원들 2주째 구슬땀 밤 10시에 시작된 작업 새벽 4시 종료...차량 70대로 배송

"매일 지역민 5만1000명에게 가는 소중 한 마스크이니 확인 또 확인해야죠."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협하나로마트 광 주물류센터의 본격 업무는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광주 26곳·전남 308곳·전북 176곳 등 510개 하나로마트에 납품될 마스크 5만

1000개가 이 시각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전국 하나로마트 1900개를 관할하는 농 협 하나로유통은 공적 판매처로 선정돼 지 난 달 29일부터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우체국·약국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하루 마스크 생산량 80%를 이곳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10일 밤 잦은 5000평(1만6500㎡) 규모 광주물류센터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종 이상자 소리와 지게차 소음만 가득 울렸다. 체감온도는 영하를 가리켰지만 60여 명 의 인력은 구슬땀을 흘리며 다음 날 공급 할 마스크를 점포별로 나누고 있었다. 매장당 들어갈 물량은 각 100개로, 센터 는 이튿날 새벽 4시 첫 배송 때까지 510개 마트에 들어갈 마스크를 분류하고 라벨을 붙여야한다. 광주물류센터 소속 마스크 운송 차량은 총 70대다. 공적 판매를 시작한 뒤 이들 차 량은 광주센터를 두 번 오고 가는 '2회전

체제'로 전환했다. 정규 차량도 부족해 한 대당 10만원 넘는 추가비용이 드는 개인 용달차도 매일 10여 대씩 동원되고 있다. 섬으로 들어가는 마스크는 무안·순천에 있는 중개소가 맡는다. 기상여건에 따라 배 운항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섬 배송은 긴장의 연속이다. 강진우(56)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 장은 마스크가 모든 점포에 매일 오후 2시 무사히 도달하는 데는 기사들의 숨은 노력 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럭 기사들은 주어진 배송지 외에도 군소 마트들에 들러 마스크를 배송하고 있

습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돈'이지만 모두 손해를 안고서 마스크 배송에 온 노력을 쏟아 붓고 있어요. 차량을 더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희 센터직원들도 개인 차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센터에 납품되고 지역민 손에 들리기까지 안전·위생관리는 최우선으로 꼽힌다. 센터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은 입 구에서 비접촉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별 포장이 안된 경우 마트 직원은 만일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이 보는 앞 에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지퍼백'에 담 아 판매하고 있다.

박병중(46) 광주물류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2주 연속 '새벽 퇴근'을 하고 있다. 물류 작업이 끝나면 녹초가 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공적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임무를 다할 생각이다. "100명 선착순 기회를 놓쳐 발걸음을 돌 리는 고객을 볼 때면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트 1곳당 4-5명이 마스크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죠. 마스크를 제 때 공급하 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응원의 말 한 마디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코로나 피해 기업 대출심사

광주신보와 협약... 77개 영업점서 보증 약정 등 업무 대행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렸던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부 대출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 심사 업무를 77개 영업점에 마련된 전담창구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달 말 광주신보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상담, 서류접 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 광주신보 업 무를 광주은행에서 대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신보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자금 대출상담이 폭 주하면서 보증상담과 현장실사 업무가 지 연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보증서 발급과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 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 70~90%

는 보증부 대출에 몰리고 있다. 광주신보가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보증 상담을 완료하거나 예약한 건수(~4월10 일)는 35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2131건) 보다 66.7% 많은 수치다. 일부 지점의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상 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주은행은 광주신보의 상담업무를 수 탁하면서 고객이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줄이고 대출심사 기간이 짧아지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은행은 145개 모든 영업점에 코로 나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최고 1.3%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했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 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



11일부터 광주은행 77개 영업점에서 코로나19 대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송중욱 은행장이 동구 충장로5가 포용금융센터에서 피해기업을 상담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 방문 한 번으로 보 증상담과 보증약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 소상공인에 자금지원이 적 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하고 적기의 금융지 원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 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로나19에 파랗게 질린 증시

코스피 '1908.27' 4년만에 최저... 코스닥 600선 붕괴

코로나19 여파로 11일 코스피가 1900선 턱밑 수준으로 내려갔다. 2016 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 포인트(2.78%) 내린 1908.27에 장을 마쳤다. 오후 한때는 3% 넘게 하락하면 서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6일(1891.81) 이후 7 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36포인트 (3.93%) 내린 595.61로 거래를 마감했 다. 이 지수가 600선 밑으로 하락한 것

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36조5849억원, 코스닥 8조 8464억원이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2 원 내린 1193.0원에 마감했다. 한편 정부의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된 첫날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나타난 10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618억원으로 전날보다 48.3%(4316억 원)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08.27 (-54.66)    금리(국고채 3년) 1.09 (0.00)
- ↓ 코스닥 595.61 (-24.36)    ↓ 환율(USD) 1193.00 (-0.20)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Fire & Marine Insurance    SGI서울보증    AXA 다이렉트 reinsurance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